

행복해지려면 ESG를 실행하라

아침을 열며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지금 우리 사회는 건강한다. 건강하기 위해선 기초적으로 먹고 입고 거주할 수 있는 식의주가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에 현대사대에 와서는 환경(E)이 좋아야 하고, 사회적(S) 나눔과 공헌을 통한 평화와 안정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G)가 상생 협력하는 질서가 더해져야 건강하다.

즉 식의주 더하기 ESG가 그 사회의 건강도를 나타내는 기준이 된다. 또 어떤 기업 학교 지역에서부터 국가에 이르기까지 식의주+ESG가 잘 되어 있으면 지속적으로 건강한 발전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쇠퇴 소멸하게 된다.

UN이 발표한 2024년 세계 행복보고서를 보면 상위 10개국은 핀란드 덴마크 등 대부분 북유럽 국가들이다. 부유한 국가인 미국은 23위에 그쳤고 한국은 52위로 일본 필리핀 베트남과 비슷한 수준이다.

왜 북유럽 사람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것일까? 그 이유를 다섯 가지를 든다. 관대함이 있는 복지, 민주적 자질이 높은

정부와 제도, 균등한 소득, 자유를 보장하는 높은 삶의 자율성, 상호신뢰와 사회적 응집력이다.

이런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ESG 진단 시 요구하는 항목들과 비슷하다. 다시 말해 북유럽의 ESG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행복지수는 낮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좋은 상태는 아니다. 더구나 1인당 국민소득이 4천달러도 안 되는 베트남과 3만불이 넘는 한국이 비슷한 행복지수를 갖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다. 경제강국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의 만족도, 사회적 건강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작년도 질병관리청 공식학술지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평균 행복지수는 10점 만점에 6.8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전남도는 어떨까? 오래 되었지만 지난 2020년 국회 미래연구원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호남권은 상위 20%에 들었다.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중 6위였다.

경제적으로 열악한데 행복지수는 왜 높았을까? 광주전남이 북유럽의 행복 5개 항목에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맞는 것 같다.

그러나 한중일 중 한국 ESG가 제일 뒤쳐져 있고 광주전남의 ESG 대응도 상

당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그런 가운데 유럽연합은 벌써 탄소중립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수입을 규제하겠다고 발표해 ESG는 발등의 불이 된 상태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식품 등 광주전남의 주요산업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제 우리사회의 ESG 수준 개선과 향상을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얼마 전 광주테크노파크는 한국표준협회와 ESG 협력 협약을 체결해 유럽연합 기업의 공급망 내에 속한 광주 지역기업들이 ESG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 실사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사실 광주에서는 지난해부터 광주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광주시의회, 기후정책포럼 등이 수차례 토론회를 해서 유관기관들과 함께 기업ESG 지원센터를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대기업체들에서 적극 나서지 않는다면 ESG 수준이 높아질 수 없다. 먼저 시, 도가 ESG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 주었으면 한다.

광주시가 최근 탄소중립 녹색성장계획을 의결하고, 강기정시장장이 이 일의 성공을 위해 시장이 중심이 되어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더욱 기대가 된다.

행복한 사회 수준을 만드는데 ESG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社說

‘소음피해 공개’ 군공항 이전 대전환 대야

시·도연구원, 24일 무안 토론회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시 발생하는 소음 영향 등이 최초로 공개되면서 갈등 국면이 대전환을 맞을지 관심이 쏠린다. 광주시, 전남도, 국방부, 광주·전남 양 지방시대위원회는 24일 무안 초당대에서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에 대비한 소음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광주연구원에서는 ‘소음 대책 및 지원방안’, 전남연구원은 ‘주변 지역 발전 구상’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자료 중 무안 등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직접적 영향 등이 공개됐다. 광주군·민간공항 이전시 무안에 발생하는 소음 영향권은 망운면(5.8km²), 운남면(12.3km²), 현경면(0.9km²) 등 19.0km²로 무안 전체 면적의 4.2%에 해당한다. 해안 입지 덕분에 광주 군 공항 소음 영향권(40.21km²)의 절반 수준이다. 광주연구원은 소음 피해를 줄이고자 광주 군 공항(8.2km²)보다 1.4배 넓은 군 공항, 소음 완충지역 부지(3.6km²)에 85웨클 이상 소음 영

향이 예상되는 5.7km²토지를 보상해 추가 확보하는 것을 제안했다. 서쪽 해안 위주 비행으로 소음을 최소화 하기에 가장 적합하다는 장점도 제시했다.

전남연구원은 광주 민간·군공항의 통합 이전 당위성과 무안국제공항과 연계한 전남 서남권 지역발전 방향을 설명했다. 무안국제공항은 이미 국가 계획에도 광주 민간 공항과 통합해서 남권 중심 공항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추가 인프라 구축 비용을 최소화 하고 항공 정비 수요 확보, MRO 산단 등 지역 미래 먹거리 육성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봤다.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논의가 이뤄진 이후 첫 구체적인 소음피해 대책 등이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군공항 이전을 놓고 광주와 전남간 갈등은 여전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는 군 공항 이전의 키포인트 무안 주민들이 지역소멸 시기, 군 공항 이전에 따른 유·불리를 판단할 좋은 기회다.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한 무조건 반대가 아닌 대화로 풀 수 있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간 3자 대면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

웰니스 관광, 전남 발전 위한 마중물 되길

순천만 등 우수 ‘웰니스’ 재지정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한국관광공사의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됐다. 건강과 회복, 휴식이 중심인 웰니스 관광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어느 산업보다 성장 가능성이 크다. 건강을 위한 투자로서의 관광을 통해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가 광주·전남의 새로운 관광 트렌드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는 2년마다 한 국관광공사가 콘텐츠의 적정성과 관광객 유치에 위한 노력,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해 선정된다. 이번에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재지정된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지난 2017년부터 5회 연속 ‘우수 웰니스 관광지’의 영예를 안았다.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는 1000만여 명이 다녀간 역대 가장 성공적인 국제행사 기록된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인 순천만습

지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코로나19 이후 치유와 휴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웰니스 관광은 관광산업의 새로운 분야가 됐다. 명상이나 요가 등 신체 활동을 통해 자신과의 깊은 연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의미 때문이다. 첨단 기술의 시대, 디지털 건강 모니터링이나 가상 현실(VR) 명상 체험 등을 활용한 웰니스의 경험도 새로운 관광 자원의 접근성과 매력을 높여준다. 관광 전문가들도 지난 2020년 4357억 달러였던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규모가 오는 2025년까지 연평균 20%가 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순천시와 전남도는 전 세계적인 관광 흐름으로 자리 잡은 웰니스 관광이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알릴 홍보 마케팅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관광객의 기호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와 편의시설 확충도 필요하다. 웰니스 관광의 핵심은 지역성이다. 웰니스 관광이 관광자원 부족으로 고민하는 전남에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면서 지속적인 성장의 마중물이 되길 다시 한번 기대한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3일(현지시각) 그리스 아테네의 고대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보이는 리카베투스 언덕 벤치에 한 관광객이 앉아 있다.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서 지중해를 가로지른 사막 먼지가 아테네를 덮치면서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주요 랜드마크들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화성을 보는 듯한 색깔을 연출했다.

아테네=AP/뉴시스

서석대

드디어 지난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다. 전남일보는 오래된 전통에 따라 바로 다음주인 15일에 당선자 교례회를 실시했다.

교례회에 모인 당선자들의 표정은 다양했다. 어떤 이에게 이번 선거는 치열한 전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감당하기 벅거운 행운 같은 것이어서 대부분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미소의 의미는 달랐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 말고도 공통점이 하나 더 있었다. 정갈한 분위기, 흐트러짐 없는 행사 속에서 당선자들은 한결 같이 ‘이번 총선이 결코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밝혔다.

이번 당선자들이 생각보다 현명하다는 점에서 작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누군가가 그 단상에서 서서 ‘민주당의 승리’라고 외쳤다면 오늘 칼럼의 주제는 사뭇 달라졌을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번 선거는 당선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당선자들은 ‘정권 심판’이라는 국민들의 거대한 흐름 속 말판이 된 것일 뿐이다. ‘정권 심판’이 얼마나 거대하고도 무서운 말인가. 그 어떤 정부도 심판을 받고자 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자신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힘



들어지면 정부를 겨냥한 분노를 다른데로 돌리지 않는다. 과거 군사정권이 수백만 써먹었던 ‘북풍’이나 구태 정치가 꺼내는 ‘우리가 남이가’, 혹은 각종 ‘프레임’들도 이번 선거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 냉혹하고도 정확한 국민의 판단은 향후 정부의 행보를 수정하도록 할 것이 분명하다.

하나 당선자, 나아가 민주당도 기억해야 한다. 이 훈풍이 그대들이 잘해서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이다.

당선자들에게

광주와 전남에서는 재선의원 타이틀 달기가 매우 힘들다. 왜 그럴까? 당의 공천을 못 받아서? 이것이 맞다면 2016년 국민의당 돌풍은 설명되지 않는다. 재선의원 타이틀을 못다는 것은 상당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조선의원의 1-2년은 사실 순식간이다. 적응하고 발언하고 무언가를 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벌써 선거가 다가온다. 당선자가 되기 전에는 ‘당선’이라는 하나의 선택지만 있었다면 앞으로 당선인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선택지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부디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진로를 결정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회에 입성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

노병하 취재1부 정치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기사제보 (062)510-0331 편집부 (062)510-0412 취재1부 (062)510-0380 취재2부 (062)510-0336 정치부 (062)510-0340	경영지원팀 (062)510-0421 광고영업팀 (062)519-0710 문화체육부 (062)510-0394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FAX (062)510-0436	광고문의 (062)512-0100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